

‘민족’에서 ‘세계’로 흔들리는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

# “대학들 규모 너무 키워 ... 私學부터 반성해야 인류보편 가치 추구하는 세계인 길러내고 싶다”

대담: 이영수 교수신문 발행인  
 일시: 장소: 2014년 3월 18일 단국대 이사장실  
 정리: 윤상민 기자 cinemonde@kyosu.net  
 >인터뷰 전문 www.kyosu.net

“이제 ‘민족’에 뿌리 내리고 ‘세계’를 응시하는 세계인을 길러내야 할 때입니다. 단국대가 그런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1932년 중국 텐진(天津)에서 태어난 中齋 張忠植 학교법인 단국대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장 이사장은 1967년 단국대 총장을 시작으로 단국대 역사를 갱신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최전선에 서 있었다. 1993년 8월 총장직에서 물러난 그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단국대 이사장직을 맡아 학교를 도왔다. 이 시기 장 이사장은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단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아카데미 외부의 일에도 깊이 참여했지만, ‘장충식’이란 이름 석자를 역사에 새긴 것은 30대 시절 시작한 16권짜리 『漢韓大辭典』 완간이었다. 그는 민족문화유산의 계승이란 문화사적 과업을 홀로 묵묵히 수행했다. 우리 나이로 올해 여든 셋. 그의 말투는 또박또박했고, 사견이나 인지도 정확하게 기억했으며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자

△ 부친으로부터 대학 운영과 관련해 뱃속 깊이 새겨 들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 생각은 장사꾼이 대학을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을 봐라, 사립대가 많지만 그 대학 출신이 대학을 운영하지 기업이 대학을 운영하지는 않는다. 메이저대, 와세다대 등 훌륭한 사상가들에 의해 대학이 만들어지고 운영됐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기업이 관여하는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선진국에서는 너도 내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족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자들이 의해 만들어진 이 대학의 정신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셨어요. 장차 남북통일 위해서도 같은 단군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교명도 절대 바꾸지 마라. 어느 정도 학교가 부흥하면 이 학교 졸업생들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그게 저의 대학관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어려운 시기 남북회담의 물꼬를 트셨죠?

“아시다시피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남북 단일팀 결성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무수히 많은 남북 실무 접촉이 스위스, 홍콩, 도쿄, 관문점 등에서 열렸지만, 제가 필름을 통해 본 바로는, 다 싸움으로 끝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의 입

△ 대학 총장, 이사장 등 대학 경륜이 깊으신데, 지금 한국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구조조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운영해본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국립대도 마찬가지지만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대학의 규모를 지나치게 크게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규모로 국민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백화점식 대학으로 변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정부나 기업이 대학을 별로 도와주지 못해서, 학생 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작용합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사학이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저희도 두 캠퍼스가 있지만 지난해 구조조정해서 중복 학과는 없애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인데, 정부가 줄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대학부터 우리부터 먼저 스스로 줄일 것은 줄여가는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거죠. 이제는 대학 운영자가 현실에 맞게끔 스스로 고쳐야 합니다. 올해에도 예산 10% 줄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봉투 하나 허투루 버리지 말자, 학생 등록금으로 커피 마시지 말자, 이렇게요. 학장님들이 제 방에 찾아오시는데, 저는 물 내놓지 커피는 내놓지 않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보자는 거죠. 학교자 대신 제 개인차로 업무 합니다.”



세계 각 나라가 자기 민족을 내세우다보면, 문화는 국경을 초월해서 전파되고 발전하는데, 민족주의 안에 머물게 되면 나라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인을 길러내기 위해 넬슨 만델라에 주목했습니다.

신감이 묻어났다. 단국대 이사장직을 다시 맡은 그는 ‘민족’을 절대 기초로 출발한 단국대에 ‘세계’를 도입하는 새로운 일에 착수해 요즘 무척 분주하다. 넬슨 만델라를 연구해 그와 같은 세계인을 길러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틈틈이 짬을 내 성악 독주회도 하고, 2년 전 발표한 대하소설에 이어 또 다른 소설과 시나리오도 구상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이복에서 내려온 이들을 돕고 있다. 산수유가 노란 꽃잎을 터뜨리기 시작한 지난 18일, 단국대 이사장 직무실에 그를 만났다.

장에서 예전의 ‘경령 축구’ 전통을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께 ‘내게 재량권을 쥐어 달라. 내가 대학 총장이나, 회담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 체육 회담 한국 수석대표(1989),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단장(1991, 포르투갈) 등을 역임하게 된 거죠. 이런 경험이 김대중 정부 시절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단장(2000), 대한적십자사 총재(2000)를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들을 많이 후원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사고로 두 팔을 잃고 발로 그림을 그리는 어린 여학생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발로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로 성장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해서 애를 유명한 화가, 전문가로 키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지원했어요. 이 친구가 얼마 뒤 홍익대가 개최한 전국 고교생 미술실기대회에서 금상인가를 수상했어요. 그래서 홍익대를 가겠다고 하는 걸 겨우 설득해서 단국대로 진학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언니가 들봐주고 있었는데, 홍익대를 가면 언니 생활은 어떻게 되겠냐, 단국대에서 언니까지 책임지겠다고 설득한 거죠. 그 친구는 지금 단국대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신랑을 구해줘야 하는데... (일동 웃음)”

△ 이사장직은 두 번째인 걸로 압니다. 과거와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저는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나갑니다. 월급도 500만 원을 줄였어요. 거기서 또 100만원은 장학금으로 내놔줬습니다. 12명의 학생을 도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받은 돈은 250만원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은 편이죠? 글쎄 안 친지 이십년이 됐습니다. 저녁때 손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여행도 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학교 돈이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좀 제한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안 가고, 술 안 먹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학금 받고 졸업한 선배들에게 후배들 위해 이제 저희가 장학금 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 이사장님이 30대였을 때 결심했던 사업 하나가 큰 결실을 거둔 게 있습니다. 31년 걸려 완성한 『漢韓大辭典』 사업인데요.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제가 고려대에서 중국사를 전공해 석사 논문을 쓸 때 관련 서적들을 보면 특수한 용어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일본 사전 보면서 공부하는 게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은사하신 정재국 선생님께 ‘과거 일본에 우리가 문화를 전달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일본 것을 보고 공부하니 참 가슴 아픕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총



©최익현

장하면서 일석 이회송 선생님을 비롯 각계 원로 선생님들을 모셔서 그분들 이름으로 사전 작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발표하면 반대할 게 뻔했으니까요. 후임 총장들께도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중재(장충식 이사장의 호)가 죽어도 이 사전은 완성해야 한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31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사전이 출간 된 뒤 어느 날 중국쪽 인사가 제게 불쑥 이렇게 말하던걸요. ‘사전이 출간됐는데 왜 한국 사회가 조용하냐.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참 좁은 것 같다.’ 물론 더 큰 대학들이 했더라면 요란했겠지요. 쓸쓸한 대독입니다. 제미난 것은, 단국대가 동양 최대의 『한한 대사전』을 내놓자, 이게 대만과 중국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8개 대학이 합쳐서 20년 걸려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한자 수는 우리 사전보다 적더군요. 하버드대, 베이징대 등 세계 유수 대학 도서관에 단국대가 만든 사전이 비치돼 있습니다. 기하 한국 대학을 대표하는 사전이라고 자부합니다.”

△ 근래 이사장님께서 ‘민족’에서 ‘세계’, 즉 지향점이 인류 공영의 가치로 눈을 돌리고 계신 것 같더군요.

“우리 대학 역사를 보면 민족주의가 그 기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광복 직후라 민족과 민족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21세기인 지금, ‘민

족’에만 눈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각 나라가 자기 민족을 내세우다보면, 문화는 국경을 초월해서 전파되고 발전하는데, 민족주의 안에 머물게 되면 나라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톨 모델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인종 탄압과 온갖 차별과 박해를 극복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는 백인이 만든 세상, 백인이 만든 체제, 백인이 만든 감옥에서 수십 년을 옥살이 했지만, 복권된 이후 정적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말레랑스’의 정신을 보여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델라 대통령을 위한 연구소를 단국대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사상은 무엇인가 등을 연구해서 새로운 세계인을 길러내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서를 읽고 아프리카를 잇는 생각에 만델라 대통령을 기념하는 종합예술관도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문화의 공통적인 광장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사회에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반대하지 않더군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반대했는데 말입니다. 2020년 완성을 목표로 한 일인데, 글쎄 제게 그때까지 시간이 허락될지는 모르겠습니다.(웃음.)”

**즐거운 同行,**  
교수신문이 대학에 드리는 약속입니다.

대학과 함께 동행한 교수신문은 대학문화, 교육정책, 학술담론을 폭넓게 담아내면서 대학의 진정한 모습을 한국사회에 정확하게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1세기를 만들어가는 대학의 참모습, <교수신문> (kyosujob.com) <대나무>가 먼저 그려갑니다.

교수·장사·연구원 인용정보 교수잡 **kyosujob.com**

교고 진로·전학 정보지 대나무 **daenamoo.co.kr**

고등교육 전문주간지 교수신문 **kyosu.net**

**kyosujob은**  
대학과 학문후속세대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kyosujob 만의 차별화 콘텐츠 1**

교수연봉 검색  
신임교수 임용 통계  
신임교수 명단  
대학별 학생 수

**kyosujob 만의 무료 서비스 2**

채용공고 등록  
이력서 등록  
대학원생 모집 등록  
연구지원/논문공모 등록

**교수신문**  
 (153-789)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70-5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405호 대표전화 02-3142-4111